ASPT참가기

국제 녹용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김 정 주/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이미 시장이 개방된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더불어 2001년에는 쇠고기 시장 마저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축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농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국민들의 경제수준 향상과 더불어 과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음식물의 섭취에서 품질이 좋고, 맛과 보신(補身)을 위한 음식물의 섭취로 식생활 문화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식으로 알려진 사슴과 오리 및 토끼고기 등 특수가축 생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슴은, 과거 부유층에서부터 사육이 시작되어 그 가격이 고가를 이루며 투기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으나, 사회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사육계층이 일반화 되었고, 국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료 자급화가 가능한데다 우리가 세계 최대의 녹용시장 이라는 점으로 인해 향후 소, 돼지, 닭에 이어 제4의 가축으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녹용의 80%를 소비하는 녹용 소비왕국인 우리가 녹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있던 차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밴프라는 휴양도시에서 「제1회 국제 녹용 심포지엄」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한국, 캐나다, 미국, 독일,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 그린랜드, 일본, 나이지리아,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세계 14개국으로부터 304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에서 40여명의 양록농가, 업계, 학계, 관련자들이 대거 참가하여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심포지엄이 캐나다에서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대회를 주관하는 캐나다 앨버타 대학 교수들이 모두 한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녹용 소비 왕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녹용을 다섯부문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즉, 생물학, 생산 기술학, 화학, 임상의학, 식품영양 및 마케팅에서 27명의 연사가 최첨단의 논문과 30여개의 녹용연구 논문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필자는 「한국의 사슴 및 양록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포스터 발표를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제 녹용 심포지엄은 매 2년마다 캐나다 밴프에서 개최하기로 했고 이를 계기로 국제 녹용과학협회가 창립되는 등 학술활동과 연결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우리는 몇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 첫째로 구제역 소동으로부터 얻은 경험이다. 참가단이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던 터라 불안감이 없지 않았으나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농장을 방문하기로 되었던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우리로부터 전염될지도 모르는 구제역 감염을 염려하는 캐나다 정부의 비상조치이었다. 일행은 모두 허탈해 하면서도 방역에 철저한 캐나다의 방역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만일 캐나다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도 그들의 방문을 과연 취소할 수 있을까?

둘째로, 캐나다 농민들의 높은 탐구 열이었

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밴프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설악동 정도의 작은 마을로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하기에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산간 오지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사슴농가들이 불원천리 찾아와 딱딱한 논문 발표를 귀담아 들으면서 전시물을 꼼꼼히 챙기는 탐구정신이 부럽기만 하였다. 만일 설악산에서 우리가 사슴논문 발표를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농가들이 참가비를 내면서도 그렇게 몰려들고 그렇게 진지하게 전시물을 챙기는 농민은 몇 사람이나 될까?

셋째로, 야생동물에 대한 캐나다 사람들의 지극한 보호정신이다. 캐나다에서는 사슴이 길거리를 어슬렁거리고 강가에 살찐 오리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유유자적 놀고 있어도 어느 누구하나 야생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네 동네 길거리에 야생 사슴이 어슬렁거리고 살찐 야생 오리가 놀고 있다면 과연 지나간 사람들이 가만 둘까?

넷째로, 기념품 경매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캐나다 양록 애호가들의 여유로움이었다. 심포지엄 마지막 저녁에 참가자들이 제각기 들고 와 주최측에 기증한 기념품에 대한 경매가 있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경매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장난 반, 실속 반이랄까? 경매참가자들은 제시된 상품의 실제 가격을 알면서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필요한 물건도 구하고 주최측에 기증도 하는 여유로움을 보였다.

필자가 한국에서 들고 간 「경주법주」 한 병은 캐나다인에게 1,000캐나다달러(8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렸다. 결국 필자가 심포지엄 주최측에 80만원 이상을 기증한 셈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행사에서 경매를 할 경우 과연 경주법주 한 병을 80만원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축산업은 여러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다.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수입량이 급증하여 시장을 내 주어야 할 판이다. 여기에서 덴마크의 유명한 달가스라는 사람이 생각난다. 덴마크는 전쟁에서 패하자 그 많던 식민지를 모두 내어 주게 되고 황무지 밖에 없는 땅만 자기 영토로 갖게 되었다. 모든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달가스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도로 찾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무심기 국민 운동을 벌려 결국 오늘과 같은 농업 부국을 만들었다. 과연 양록업이 제자리를 잃고 있는 우리 축산업을 찾아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직할회원 전환 공고

본회 제155차 이사회는 2000년 지회총회 평가결과 고양, 금오, 부산 3개 지회를 폐업이적 및 관리부실로 인한 부실지회로 규정하고 소속회원을 중앙회 직할회원으로 관리함을 공고합니다.

소속지회 회원은 회비납부 등 관련 업무를 중앙회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직할지회

지회명	지 회 장	관할구역	비 고
고 양	정 귀 채	고양	회원 전업으로 지회기능 마비
금 오	이 시 철	김천, 의성	조직관리 부실
부 산	김 영 욱	부산, 양산	회원 전업으로 지회기능 마비

□ 해산지회

울 산	차 재 만	울산	자진 탈퇴

※ 개편대회를 통해 운영이 정상화되면 지회조직이 부활됩니다.

사단법인 **한 국 양 록 협 회**